

石油安定基金인하배경과 內訳

- 動力資源部 -

I. 83. 4. 19 油價調整概要

1. 調整배경 및 內訳

- 제67차 OPEC 임시총회(83. 3. 14 런던) 결과 原油價 인하—사우디 輕質油價기준 34 \$/B→29 \$/B(▲ 5 \$/B)
- 앞으로의 國內油價 인상요인의 완충과 에너지 소비절약 및 國民경제의 취약부분 보강을 위하여 原油價 인하분중 70%를 基金 및 재정으로 흡수
- 國內 도입 原油 복합 單가 인하: ▲4.53 \$/B
 - 油價인하 : 1.36 \$/B—30%
 - 石油安定基金 : 1.72 "] 70%
 - 関稅(0 → 5%) : 1.45 "]
- 調整률: 4.76% 인하
- 換率: 83년중 3% 상승 전제(82말 750.7 원/\$ → 83말 773.2 원/\$)

2. 原油價하락 유보분 및 安定基金의 용도

- 原油價하락 유보분(石油安定基金 1.72 \$/B, 関稅 1.45 \$/B)은 油價인상요인 발생시 완충기능으로 사용.
- 조성된 安定基金은 다음 용도에 사용
(1) 韓電의 國民투자자금 용자代替: 1,000 억원

- 이 代替로 인하여 여유가 발생한 國民투자 자금은

電子 및 반도체 지원	200 억원
연불수출 지원	400 " "
기타 重化學 지원	100 " "
국산 기계 구입자금 지원	300 " "
(2) 채화무연탄 비축	252 억원
(3)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	238 " "
(4) 水資源개발사업	420 " "
計	1,910 억원

II. 換率上昇추세 및 油價에 미치는 영향

1. 換率상승추세

	83. 6. 1	83. 8. 14	83. 10. 1	83. 12. 1
● 換率上昇(%)	3.1	5.2	5.4	6.3
● 原油구입비 증가(억원)	620		890 1,063	
● 조치사항	나프타의 國際價 수준접근 위한 가격조정		비축기금인하 : 0.30 \$/B (1→0.70 \$/B)	
● 당시換率전망	83말 3% (773.2 원/\$)	83말 4.2%	83말까지 당시수준	83.84말 현 수준 유지

2. 換率이 油類價에서 차지하는 비중

- 換率상승은 국제原油價 인상률 이상으로 原油구입비의 직접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
 $\text{原油구입비} = \text{原油}(\text{국제原油價} + \text{운임등}) \times \text{換率} + \text{換差損}$

- 換率 1% 상승시 油價 1.3% 인상요인 발생

原油代의 직접증가요인 : 0.92% (原油구입비가 국내油價에 차지하는 비중 : 92%)
 原油代지불을 위한 외화채무(22억달러)에 대한 換差損 발생등 증가요인 : 0.35%

原 油 구 입 비 비 교

	原油구입비증가액 (당초대비)	原 油 구 입 비	原油價(\$ / B) (국제 原油價+운임등)	換率(원 / \$)
당초(現油價 반영)	-	27,448원 / B	27.60 + 8.25	765.65
國際原油價1% 인상	212 원 / B	27,660 "	27.60 + 0.276 + 8.25	765.65
換率 1% 상승	380 원 / B	27,828원 / B		
┌ 직접요인	275 "	27,723 "	27.60 + 8.25	765.65 × 1.01
└ 換差損 발생	96 "	96 "		
└ 지급利子 증가	9 "	9 "		

* 換率 1% 상승시 연간 664억원의 추가비용 발생

原油代 직접증가	: 473억원
換差損 발생	: 174 "
지급利子 증가	: 17 "

2. 原油구입비 증가대책

- 原油구입비 증가전망 : 現換率(797.9원/\$)이 83.12~ 84말까지 유지 전제
 - 83 : 1,063 억원
 - 84 : 1,213 " } 2,277 억원

Ⅲ. 換率上昇에 따른 原油구입비 증가대책

1. 対策의 필요성

- 83.12.1 현재 換率이 연초대비 6.3% 상승, 油價반영폭 3%보다 3.3% 이상 상승(油價반영 換率 : 83말 773.2원/\$, 12.1자 換率 797.9원/\$)
- 이로 인하여 原油代 부문에 추가비용 발생
- 대책이 지연될 경우, 原油구입비 증가분 누적으로 油價인상폭만 증가.
 - 최근 유전스 수입기간 단축조치(12.1)가 겹쳐 자금압박 심화

	83.12	84.2	84.3
● 油價인상시(%)	4.0	4.6	4.9
● 基金징수 인하폭	1.43	1.63	1.73
● 原油구입비 증가분 (억원)	772	1,044	1,180

(1) 基本方向

- 石油安定基金(1.72 \$/B)으로 原油구입비 증가분 완충
- '83말 및 '84초의 換率실적추이에 따라 '84.1/4분기중 보완 대책 수립 시행

(2) 安定基金 인하방안

- 原則
 - (가) 換率상승에 따른 原油費 증가분의 일부를 精油社에서 분담
 - 완충규모의 최소화
 - (나) 精油社 귀책 손실 불고려
 - LPG 판매경쟁 및 溶劑 등 低價판매
 - (다) 나프타價 인상 및 나프타의 油價기준 생산량 미달에 따른 수익은 회수
 - (라) 비축기금 일부인하에 따른 수익차감
- 要조치 原油구입비 증가분 : 648 억원
 - 換率상승에 따른 原油費 증가: ▲1,063 억원
 - 차감요인

• 83나프타 생산량 미달	124억원
• 나프타세 인상수익	169 " (9.9%, 8.14)
• 비축 기금 인하수익	122 " (0.3%, 10.1)

計	▲648억원

• 基金 인하 소요 : 약 1.17 \$ / B
(安定基金 1.72 \$ / B → 0.55 \$ / B로 인하)

3. 期待効果

- (1) 국제原油세 인상보다 油價인상요인에 더 큰 영향을 주는 換率상승에 따른 油價인상요인을 완충.
- (2) 83. 4. 19 국제原油세 하락에 따른 국내油價조정시 공표한 石油安定基金 조성 명분 충족.
- (3) 83~ 84 물가안정목표 도매물가 제로 수준 실현에 기여.

- 83. 12기준 油價인상요인 4 %로 油價를 조정할 경우, 도매물가 영향 0.9%.
- (4) 월동수요기 油價의 안정세 지속으로 家計 및 산업활동의 지속적 지원.
- (5) 換率상승에 따른 原油구입비 증가분의 부담으로 精油社의 자체경영 합리화 노력유도.

4. 향후 油價管理對策

- (1) 油價관리제도 개선 추진
 - 정부 직접 규제의 단계적 축소
 - 油價자유화 여건 조성
 - 油價자유화시 부작용이 적은 분야부터 조기 실시 방안 강구.
- (2) 精油社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추가비용의 자체흡수 능력 제고. *

□ 産油国短信 □

에콰도르의 公式油價引下時期, 今年 1月 1日附

에콰도르가 Oriente의 公式價格을 금년 1月 1日附로 28.20달러에서 27.50달러로 인하했다고 키토駐在美大使館의 한 관리가 지난 29일 확인했다. Crude Oil Marketwire紙는 이보다 앞서 에콰도르의 油價引下措置를 보도했으나 油價引下時期를 작년 12월 16일附인 것으로 알린 바 있다. 그는 또 에콰도르의 現産油量이 OPEC컷터 20万b/d를 약 4.2万b/d 초과하는 24.2万b/d라고 말했다. 에콰도르의 이같은 공식적인 油價引下措置는 OPEC 會員国中 첫번째로 原油販賣不振을 타개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業界消息通들에 따르면 지난 12월동안 에콰도르는 原油를 팔지 못해 적어도 200万배럴의 原油를 탱크 및 油槽船에 貯油하는 곤경에 처해 現物市場에 덤핑한 것으로 알려졌다.

Crude Oil Marketwire紙는 에콰도르 国营石油会社 CEPE에 의한 Oriente原油의 最近去來內訳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.

- (12/16) 375, 257 배럴 U\$ 27.67/bbl C&F (12/26) 371, 784 배럴 U\$ 27.40/bbl C&F (12/18) 371, 784 배럴 U\$ 27.60/bbl C&F (12/29) 381, 423 배럴 U\$ 27.60/bbl C&F *